

# 201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정답

1	②	2	②	3	③	4	①	5	④
6	②	7	①	8	⑤	9	⑤	10	④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③
16	①	17	③	18	④	19	①	20	③

#### 해설

1.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대화에서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도덕적 타락으로 보았다. 공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예(禮)의 회복으로 인(仁)을 실현하는 것과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지위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플라톤과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마르크스이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하고,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3.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노자의 사상이다. 그는 무위자연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무지와 무욕을 바탕으로 편견과 인위를 버리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4.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석가모니가 제시한 사성제 중 고성제이다. 석가모니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여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물이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기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5. [출제의도] 흠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흠의 사상이다. 그는 도덕성의 기초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라고 보았다. 또한 어떤 행위의 선과 악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정서를 통해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 충족을 인정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위정척사와 동학사상 비교하기  
 갑은 위정척사 사상이 최익현, 을은 동학의 사상이 손병희이다.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성리학적이념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사학(邪學)을 물리쳐야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학 사상가들은 외세에 반대하는 민족 주체 의식을 보였으며, 당시의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거부하여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단칠정론 비교하기

갑은 이황(李滉), 을은 이이(李珣)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연원이 다르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모두 기에서 발한다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이황과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은 왕수인의 양명학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理)이므로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경(敬)의 자세로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깊이 궁구해야 참된 앎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스토아와 공리주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 을은 공리주의 사상가 밀이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일이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보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밀은 사회적 유용성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으며,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소피스트,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피스트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며,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 얻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도덕의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았으며, 고결함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중시하였다.

12.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순자,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偽]의 결과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맹자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며, 교육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확충할 것을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추으로써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인 행복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아퀴나스는 종교적 덕을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이 얻어진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성리학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주자의 성리학이다. 그는 이치[理]가 마음과 사물 모두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심성을 마음의 본체인 성(性)과 마음의 작용인 정(情)으로 나누어 보았다.

15.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원효의 일심 사상이다. 그는 일심(一心)으로 모든 종파의 논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사상이다. 그는 도(道)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이나 사물이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또한 세속적 차별과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흄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피노자, 을은 흄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 법칙을 인

식하고, 정념에서 벗어남으로써 행복해진다고 주장하였다. 흄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사상가 A는 정약용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自主之權]를 지닌 존재로 자신의 선택으로 선행과 악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행위의 실천으로 인의예지의 사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며, (나)의 가로 열쇠 (A)는 행운, (B)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벤담은 결과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선이며, 행복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위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행복과 도덕적 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20. [출제의도] 칼뱅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칼뱅의 사상이다. 그는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현세적 징표라고 보았으며, 직업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